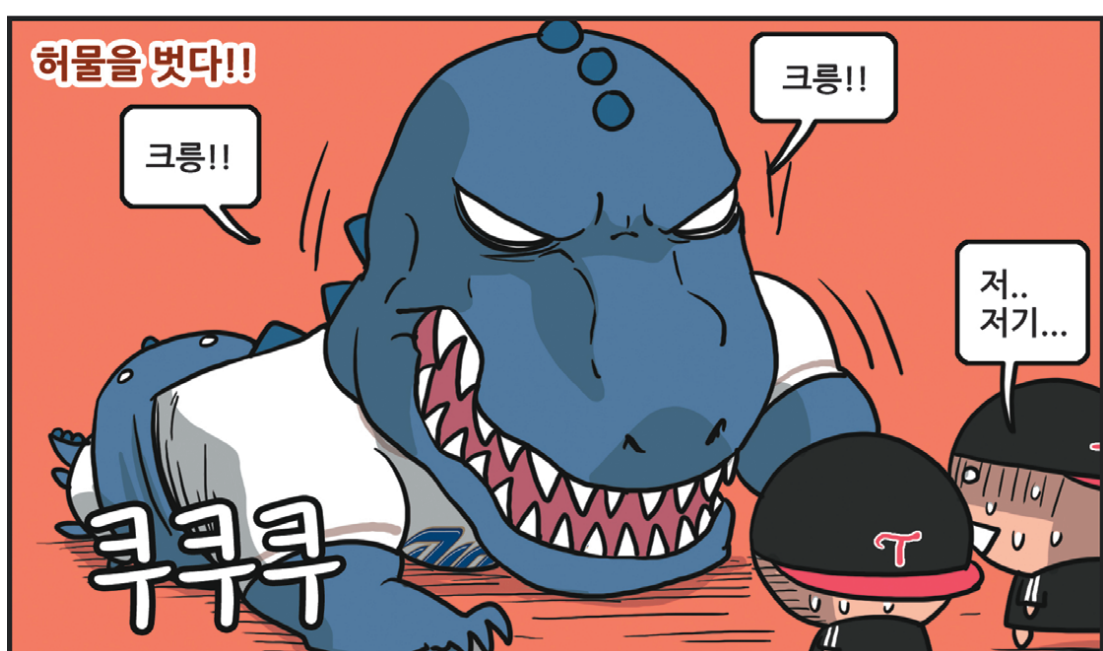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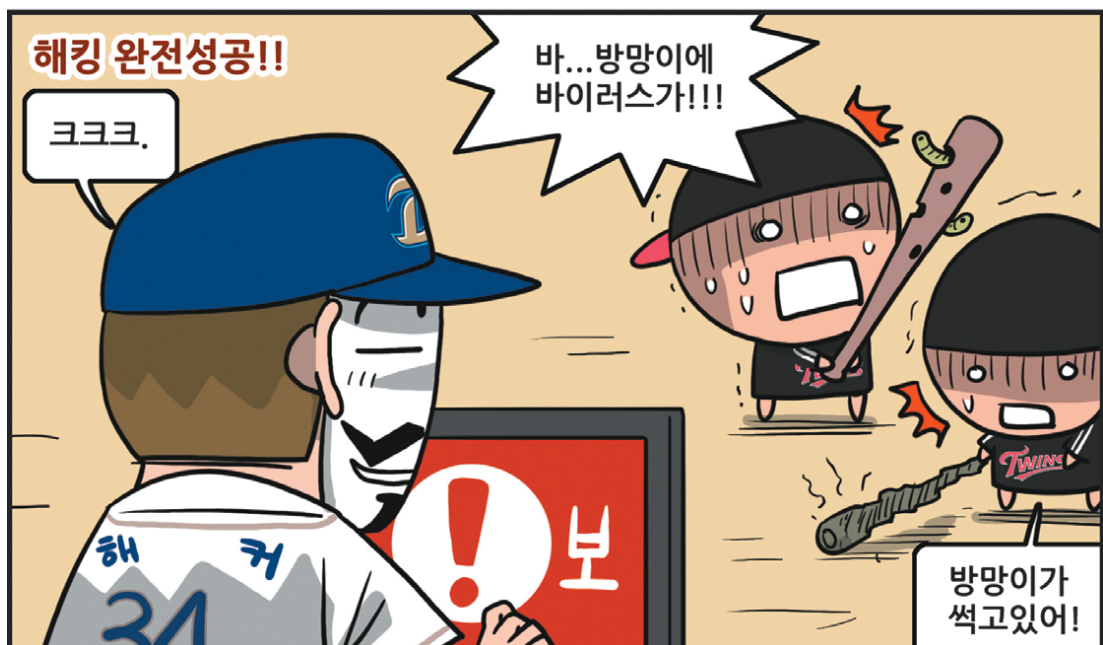




※ '돌직구'는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 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2홈런 4타점...컵스 올린 '페레즈'

클리버, 6이닝 무실점...생애 첫 WS 승
2차전 선발 바우어 vs 아리에타 맞대결



클리블랜드가 '저주의 대결'로 불리는 시카고 컵스와 월드시리즈 1차전을 승리하며 첫 단추를 깔끔하게 끼웠다. 클리블랜드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컵스와 '2016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6-0의 완승을 거두고 기선을 제압했다. 양 팀은 오랫동안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팀으로 유명하다. '와후 추장'의 저주에 걸렸다는 클리블랜드는 1948년 이후 68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염소의 저주'에 걸렸다는 컵스는 1908년 이후 108년간 월드시리즈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풀리는 셈이다.

클리블랜드 선발 코리 클루버는 6이닝 4안타 9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생애 첫 월드시리즈 승리투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클루버는 3회까지 8개의 삼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월드시리즈 최초 기록이다. 또한 9개의 삼진도 월드시리즈에 출전했던 클리블랜드 투수 중 최다 기록이다. 컵스 선발 존 레스터는 5.2이닝 6안타(1홈런) 3볼넷 7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클리블랜드는 1회 2사 만루에서 호세 라미레스의 내야안타와 브랜든 가이어의 몸에 맞는 볼로 2-0을 만들었고, 4회에는 로베르토 페레즈의 1점홈런을 보태 3-0으로 달아났다. 페레즈는 8회 2사 1·2루에서 3점홈런을 터트려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한편 양 팀의 월드시리즈 2차전은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클리블랜드는 트레버 바우어가 선발등판해 2연승에 도전하고, 컵스는 제이크 아리에타를 내보내 반격을 노린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클리블랜드 로베르토 페레즈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8회 헛타론으로부터 3점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페레즈는 이날 2홈런 4타점을 기록했고,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6-0 승리.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LG 양상문 감독 “젊은 선수들의 성장...흐뭇하다”

“채은성 유강남 등 팀 10년 책임질 선수”

야구선수 중에 지고 싶은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과정이 좋았어도 패배가 아쉽지 않은 감독은 없다. 25일 플레이오프(PO) 4차전에서 패한 뒤 만난 LG 양상문(사진) 감독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잔뜩 충혈된 눈으로, 의자에 지친 몸을 쓰러지듯 말기면서 “이길 수 있었는데...”라고 한 마디를 토해냈다.

양 감독은 아쉬워했지만 LG는 2016년을, 이 가을을 뜨겁게 만든 주인공이었다. 지난해 9월 라는 최악의 성적을 받은 팀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탄탄한 전력으로 승승장구했다. 매 순간이 드라마였다. 5월 승률에서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며 하위권으로 처지는 듯 했지만 후반기 멋지게 반등하며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따냈다. 특히 KIA와 치열한 4, 5위 싸움에서 결정적 경기를 차례로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LG의 기적은 4강이 끝이 아니었다. KIA와



의 와일드카드(WC) 결정전, 박선과의 준PO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NC와의 PO에서도 2패 뒤 3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하며 시리즈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비록 PO 4차전에서 패했지만 LG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투혼은 많은 야구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전문가들은 올 시즌 LG가 또 다시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전력만 두고 봤을 때 내검표보다 물음표가 많았다.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양 감독만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다. 양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단지 표출하지 못했을 뿐 잠재력이 많았다”며 “이전(롯데)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내 결정을 의심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감독의 독심 덕분에 LG는 올해 얻은 수확

이 많다. 가장 큰 열매는 채은성 유강남 문선재 양석환 안익훈 이천웅 김지용 임정우 등 앞으로 팀의 10년을 책임질 젊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올해 1군에서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가을야구 무대까지 밟으면서 한층 성숙했다. 그 ‘경험’은 선수들에게 앞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이 될 것이다. 양 감독도 “올해 우리 선수들이 참 잘했다”며 칭찬하고는 “경기를 지르면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PO에서는 선수들이 너무 지쳐서 방망이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줬다”고 흐뭇해했다.

LG는 2016년을 통해 오늘날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이 됐다. 양 감독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 감독은 “11월 1일부터는 일본으로 넘어가 마무리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지나해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을 두루 살펴보겠다. 투수를 좀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팀에 부족한 장타력을 지닌 해결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SK, 외국인 감독 후보 ‘트레이 힐먼’과 접촉

일본시리즈 우승 경험으로 ML 감독까지



일본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트레이 힐먼(53·사진) 휴스턴 벤티코치(수석코치)가 KBO리그로 옮겨, SK가 외국인감독 후보 중 1명으로 힐먼과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의 제리 크레스닉은 자신의 트위터에 ‘휴스턴 벤티코치 힐먼이 한국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SK는 지난해 주 힐먼과 만나 감독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K는 사장과 단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해 외국인감독 후보 3명과 접촉했다.

힐먼은 40대에 감독으로 일본프로야구 우승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내고, 미국으로 돌아가

메이저리그 감독에 올랐던 독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아시아 야구 경험이 있어 KBO리그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1985년부터 3년간 클리블랜드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내야수로 뛰다 1988년부터 클리블랜드에서 스카우트 일을 시작한 힐먼은 2003년 니혼햄 감독으로 부임해 이듬해 홋카이도로 연고지를 옮긴 팀에서 팬 친화적인 모습으로 구단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리는데 공헌했다. 힐먼은 하위권을 전전하던 니혼햄을 2006년 퍼시픽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44년만의 일본시리즈 우승까지 해냈다.

우승 직후인 2006년 말 텍사스와 샌디에이고, 뉴욕 양키스 감독 후보에 올랐던 그는 2007년 말 캔자스시티 감독으로 선임되며 미국으로 돌아갔다. 일본프로야구 감독 경력으로 메이저리그 감독이 된 첫 번째 사례다.

이영노 기자 nirvana@donga.com

이대은, 경찰야구단 신체검사서 불합격



이대은(전 지바롯데·사진)이 25일 진행된 경찰야구단 추가모집 신체검사서 불합격했다. KBO가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해외파 선수들에 대해 군팀 퓨처스리그 출전을 허용한 ‘이대은 특별법’을 시행했으나, 올해 1월 개정된 의무경찰 설치법에 따라 문신을 사유로 불합격했다. LG 오지환도 문신 탓에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탈락했다.

KIA, 쇼다 고조 타격코치와 계약

KIA가 시즌 종료 후 한화를 떠난 쇼다 고조 타격코치와 계약했다. 일본인인 쇼다 코치는 기존의 1군 박흥식 타격코치를 보좌한다. KIA는 올해 1군에 있던 홍세완, 유동훈, 김창희 코치가 퓨처스팀의 타격·투수·수비 분야 메인코치로 이동하는 등 보직도 일부 조정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